



리우의 별 | 미국남자농구대표팀 리더 카멜로 앤서니

세번째 올림픽 금 노리는 ‘캡틴아메리카’

NBA 미국선수 유일한 4회 연속 출전 베이징·런던 금 재현할 마지막 기회 제임스·웨이드 불참으로 역할 커져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 ‘어벤져스’는 슈퍼 히어로들의 연합군이다. 각자 특별한 능력이 있고 개성도 강하지만, 전투 시에는 뽀빠이 동치고 그 중심에는 대장인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서는 미국남자농구대표팀은 미국프로농구(NBA)에서 ‘농구 좀 한다’는 선수들이 모인 연합군이다. ‘드림팀’으로 불리는 미국남자농구대표팀을 어벤져스에 비유한다면, 이 팀의 캡틴 아메리카는 카멜로 앤서니(32·뉴욕 닉스)다. 개인 통산 3번의 올림픽에 출전해 2개의 금메달을 이미 목에 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가 될 리우 올림픽에서 3번째 금메달에 도전한다.

●드림팀의 히로애락 함께한 앤서니

미국은 NBA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된 1992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0시드니 올림픽까지 금메달을 휩쓸며 농구중추국의 자존심을 세웠다. 그러나 2004아테네 올림픽에선 출전을 거부하며 동메달에 머무를 수모를 당했다. 당시 프로 첫 시즌을 보낸 뒤 대표팀에 합류한 앤서니는 신인 드래프트 동기이자 친구인 르브론 제임스(32·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드웨인 웨이드(34·사카고 불스)와 올림픽 금메달의 꿈을 부풀어있었으나, 예상 밖의 패배에 좌절을 겪었다. 미국농구협회는 마이크 슈웬스키(69·듀크) 감독을 대표팀 전임감독으로 임명하고 재건에 나섰다. 미국은 2006년 일본에서 벌어진 세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도 3위에 머물렀지만, 2년 뒤 베이징 올림픽에선 코비 브라이언트(38), 제임스 키드(43·이상 은퇴)가 가세한 데다 앤서니-제임스-웨이드 트리오가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전력의 절정에 이르렀다. 압도적 경기력으로 상대들을 제압한 미국은 8년 만에 올림픽 금메달을 되찾았다. 이 때 슈웬스키 감독은 스포츠인인 앤서니를 파워포워드도 기용해 스포츠인업의 핵심으로 활용했다. 뛰어난 외곽슛 능력을 지닌 앤서니는 상대 백만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브라이언트, 제임스, 웨이드 등이 빈 공간으로 침투해 공격을 퍼

부었다. 앤서니는 2012런던 올림픽에서도 파워포워드로 활약하며 2회 연속 올림픽 금메달의 주역이 됐다. 그는 평균 16.3점으로 케빈 듀란트(평균 19.5점·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이어 팀 내에서 2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렸는데, 3점슛 성공률은 무려 50%(46개 시도·23개 성공)였다. 앤서니의 활약에 자극받아 더블포스트를 고집해왔던 국가들도 골밑에 센터 1명만 놓고 외곽이 가능한 포워드를 파워포워드로 기용하는 스텔라인업을 꾸리기 시작했다.

●4번의 올림픽에 출전한 유일한 미국 농구선수

앤서니는 이번에도 가까이 슈웬스키 감독의 부름에 응했다. 3차례의 올림픽을 함께했던 제임스와 웨이드는 휴식을 이유로 빠졌다. 자연스럽게 앤서니는 팀의 최고참이자 주장이 됐다. 슈웬스키 감독은 “앤서니는 이번이 4번째 올림픽이다. 누구도 가지지 못한 그의 경험과 높은 수준의 경기력은 우리 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굳은 신뢰를 드러냈다. 미국 국적의 NBA 선수 중 4회 연속 올림픽에 나선 이는 앤서니가 유일하다.

2020도쿄 올림픽부터 남자농구는 남자축구와 마찬가지로 출전선수 연령이 23세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미확정)이다. 32세의 앤서니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이다. 앤서니는 늘 승리에 배고프다. 친구인 제임스와 웨이드가 수차례 NBA 우승을 경험하는 동안 그는 NBA 파이널 문턱에도 가지 못했다. 리그 우승 경쟁이 전무한 까닭에 올림픽 금메달은 그에게 더욱 각별하다. 앤서니는 “종종 주위 사람들로부터 ‘너에게 올림픽 금메달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을 듣는다. 올림픽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쉽게 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은 2일(한국시간) 휴스턴 토요 타센터에서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치러 110-66으로 대승을 거뒀다. 앤서니도 19점·5리바운드로 팀 내 최다득점을 기록하며 이틀값을 토틀했다. 5번의 평가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드림팀과 앤서니는 3일 리우로 향한다. 호주, 중국, 프랑스, 세르비아, 베네수엘라와 함께 A조에 편성된 미국은 7일 중국전을 시작으로 조별리그에 돌입한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카멜로 앤서니는 누구?

▲생년월일=1984년 5월 29일(뉴욕 출생) ▲키·몸무게=203cm·107kg ▲선수 경력=덴버 너게츠(2003~2011년), 뉴욕 닉스(2011년~현재) ▲미국대표팀 경력=2004아테네올림픽 동메달~2006세계농구선수권대회 동메달~2008베이징올림픽 금메달~2012런던올림픽 금메달 ▲수상 내역=2003미국대학농구 최우수선수, 2012~2013시즌 NBA 득점왕(평균 28.7점), NBA 올스타 9회



‘캡틴 아메리카’ 카멜로 앤서니(오른쪽)는 미국 국적의 NBA 선수로는 처음으로 4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한다. 미국남자농구대표팀 주장인 그는 자신의 3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오른쪽(미 캘리포니아주) | 신화뉴스

‘가난 탈출’ 부푼 꿈 안고 달리는 케냐 육상선수들

우승하면 상금·스폰서십·광고 수입 자국 아이들 학교 보낼 보조금 보태

빈곤은 오늘날의 케냐를 육상 강국으로 만든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케냐는 2012런던 올림픽에서 육상에 서만 11개의 메달을 쟁겼고, 2015베이징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총 16개(금7·은6·동3)의 메달을 따내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육상 각 세부종목의 세계랭킹 10위 안에도 어디 하나 케냐 선

수들이 이름을 올리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육상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이런 케냐에선 육상이 가난을 탈출하기 위한 길로 여겨지기도 한다. 세계적 육상선수로서 거듭나면 각종 대회에서 큰 우승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4월 열린 보스턴마라톤대회와 런던마라톤대회에 출전해 모두 총상금이 100만달러(약 11억원)가 넘는다. 이뿐만 아니라 스타 선수들은 스폰서십과 광고만으로도 매년 그관급의 수익을 쉽게 벌 수 있다.

케냐 육상선수들이 벌어들인 수익금 중 상당수는 자국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보조금으로 쓰인다. 마라톤 선수인 케냐의 케냐는 2012년 재단을 설립해 어린이 300명과 농부 2000명 등을 지원했다. 케냐는 “만약 내가 대회에서 우승하면 아이들이 내년에 학교를 갈 수 있다. 우승하지 못하면 그럴 수 없다. 이는 나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왜 빨리 달리느냐’고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가난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부작용도 있다. 육상을 통한 성공을 꿈꾸는 이들이 많다보니 지난해에 대규모 금지약물 복용 사실이 적발돼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으로부터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금지 징계를 받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추가 도핑 테스트를 거친 선수들에 한해 대회 출전이 가능하다고 결정해 희망의 불씨를 살려줬다. 리우 올림픽에 나서는 케냐는 “우리는 단지 메달을 따기 위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 아니다. 케냐 육상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고 힘주어 말했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미드필더 문창진은 올림픽축구대표팀의 최다득점자다. 5일(한국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린 피지와의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조별리그 C조 1차전에서 한국의 시원한 승리를 이끌 길라잡이다.

‘16골’ 문창진, 피지전도 부탁해

(올림픽대표팀 28경기)

신래용호 키맨... 첫 메이저대회 출격

올림픽축구대표팀 미드필더 문창진(23·포항·사진)은 170cm의 키에 왜소한 체형이지만, 공격 2선의 중심축을 맡고 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님에도 그는 올림픽대표팀에서만 28경기를 치러 16골을 뽑아 최종 엔트리에 포함된 18명 중 최다골을 기록 중이다.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본선 무대에서도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문창진은 5일 오전 8시(한국시간) 브라질 사우바도르 폰치 노바 경기장에서 열린 피지의 리우 올림픽 남자축구 조별리그 C조 1차전에도 선발출전이 유력하다. 그는 지난달 31일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 2골을 터트리며 절정의 감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문창진에게 더 많은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는 국제대회에 유독 강한 면모를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7월 부상을 입은 이후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장기간 결장했다. 올림픽대표팀에서도 한동안 제외됐다. 부상에서

회복해 11월 클래식 1경기에 출전한 뒤 시즌을 마쳤다. 그러나 올림픽대표팀의 부름을 받고 곧바로 부활했다. 올해 1월 카타르 도하에서 리우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을 겸해 펼쳐진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4골을 작렬하며 한국의 준우승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올해 클래식에선 많은 경기에 출전했지만 1골에 그쳤다. 그러나 올림픽대표팀에선 3월 2차례 평가전, 6월 4개국 친선대회에서 모두 득점포를 가동하며 존재감을 뽐냈다.

문창진은 U-20 대표팀 시절 허리 부상으로 2013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본선 엔트리에 제외되는 불운을 경험했다. 이 대회 예선전이었던 2012년 AFC U-19 챔피언십 8강전부터 결승전까지 3경기 연속골로 한국이 우승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정작 꿈의 무대를 밟진 못했다. 문창진에게는 리우 올림픽 출전이 첫 메이저대회 출격이다. 그가 피지를 상대로도 골 맛을 보며 ‘국제용’임을 다시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yong@donga.com

“메달보다 펠프스와 사진 찍는게 꿈”

Fun & Fun 올림픽

18세 마르디니 난민팀 수영선수 “세계 난민들에게 희망 주러 참가”

난민팀 소속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수영선수 유스라 마르디니(18·시리아)는 세계 최고의 수영스타 마이클 펠프스(31·미국)를 만난 생각에 들떠있다.

시리아의 촉망받는 수영선수였던 마르디니는 지난해 8월 내전에 짓밟힌 고향 다마스쿠스를 떠나야 했다. 새 삶을 찾아 레바논과 터키를 거쳐 그리스로 향하던 도중 예게 해에서 타고 있던 보트의 엔진이 고장 나 위기를 맞았다. 마르디니는 역시 수영을 했던 친인친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었고, 3시간 가량 직접 배를 밀어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 도착했다. 마르디니의 용기에 감명을 받은 올림픽 관계자는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훈련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했고, 그녀는 올림픽 최초의 난민팀에 포함돼 이번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위기 속에서 상상 못할 힘을 발휘했지만, 여느 또래와 다를없이 천진난만한 소녀다. 브라질에서의 모든 것이 신기하다. 마르디니는 난민팀의 남자수영선수인 라미 아니스(시리아)와 함께 선수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각국의 스포츠 영웅들을 만나고 있다. 특히 둘은 펠프스의 오랜 팬이다. 마르디니는 “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올림픽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영광이다. 펠프스를 만나고 싶다. 그와 함께 사진 찍을 기회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대회 관계자는 향후 펠프스에게 직접 “난민팀 선수들과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냐”고 정중히 부탁할 계획이다.



내전이 터진 고국 시리아를 떠나 난민팀 소속으로 2016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수영의 유스라 마르디니는 “마이클 펠프스를 만나 함께 사진 찍을 기회를 얻고 있다”며 들뜬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뉴스

고국의 국가 대신 오륜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 무대에 나서지만, 마르디니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한 마르디니는 “언젠가 시리아의 평화가 회복돼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은 모든 선수들의 꿈이다. 우리는 전 세계의 난민들을 대표해 올림픽에 나선다. 전 세계 모든 난민들 또한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어 계속해서 도전하고 각자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세계인의 용기를 북돋웠다.

서다영 기자

편집 | 정용원 기자 sadzoo@donga.com